



명성황후의 국장 행렬이 지나가는 길은 한양의 도시구조가 크게 개편되는 것을 선언적으로 보여준다. 육조거리에서 광화문과 경복궁과 백악으로 구성되는 상징적인 도시경관은 육조거리 남쪽의 황토현으로 가려있었다. 명성황후의 국장을 계기로 육조거리와 경운궁을 잇는 큰 길이 생겼으며, 이에 백악과 경복궁, 광화문과 경운궁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관축이 형성되었고, 그에 따라 근대 도시경관이 만들어졌다.

### 3) 경운궁과 궁궐 부속시설

1899년에 독일제국 황제 빌헬름 2세의 동생인 하인리히 친왕(Heinrich Prinz von Preußen)이 대한제국을 방문하였다. 그 이후 독일공사관은 1900년에 경운궁의 남쪽에 있던 독일공사관 자리를 대한제국 정부에게 매각하고, 남산 기슭 회현동으로 이전한다. 앞서 경운궁 주변의 각국 공사관에게 경운궁역의 확보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했으나, 적절한 대지를 확보하지 못했던 대한제국으로서는 독일공사관의 협조 덕분에 1901년 중화전